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만 수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정물화 속 삶과 죽음에 대한  
회화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2022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박 나 회

정물화 속 삶과 죽음에 대한  
회화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이 만 수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박 나 회


# 인 준 서

박나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1년 11월

심사위원장 권기범 

심사위원 이만수 

심사위원 노신경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본 논문은 정물화를 통한 삶과 죽음에 대한 이미지 연구를 주제로 2021년 ‘뒤란의 조각들’이라는 석사학위 청구 전시 작품부터 2021년까지의 작업을 바탕으로 기술되었다.

본인은 가족을 잃은 개인적인 경험과 트라우마로 인해 연구와 작업을 통해 삶과 죽음에 대해 고찰하게 되었다. 가족의 죽음이라는 경험과 트라우마는 감정을 가장 극대화시키며 일상을 뒤흔들었고 이때 곁에 있는 물건들은 떠나간 이를 가리키는 것 같아 물건에 대한 애착심과 집착을 갖게 하였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바니타스 정물화 연구를 시작했다.

바니타스 정물화를 시작으로 미술 속 도상과 상징을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며 그 중 바니타스 정물화의 도상과 상징을 비롯하여 다른 정물 도상과 상징들도 연구하였고 이러한 전통 도상들의 차용과 일상 속 이미지의 수집해 본인의 작업 형식으로 재해석해 보았으며 나아가 일상 속 죽음의 경험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회화 연구와 작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수집과 연구를 바탕으로 재해석한 정물 이미지들을 수의를 연상시키는 린넨 위 석영가루와 호분으로 건조한 벽면 같은 배경을 만든 후 얇은 먹선으로 화면에 담았으며 이러한 재료의 사용을 통해 죽음의 분위기를 만들어 그림 속 도상과 상징물들이 지닌 죽음의 의미를 더욱 강하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이론과 재료 연구들을 통해 죽음에 대한 태도와 트라우마의 극복 과정을 표현하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와의 대면이라는 과정은 죽음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극복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를 연구하며 작업에 담고자 했다. 또한 앞으로 본 논문의 연구 경험

을 바탕으로 삶 속에서 죽음으로 인해 괴로웠던 경험을 한 이들의 일상의  
치유가 되는 작품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계기가 되었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II. 본론 .....	3
1. 종교 속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 .....	3
2. 정물화 이미지 속 삶과 죽음 .....	9
1) 도상과 상징 .....	9
2) 바니타스 정물화 .....	15
3. 작품설명 .....	19
III. 결론 .....	36

## 참고문헌

## ABSTRACT

## 작 품 목 차

【작품 1】 무제, 80.5×117cm, 린넨에 석영 및 혼합재료, 먹, 2021 .....	24
【작품 2】 기도와 석류, 91×117cm, 린넨에 석영 및 혼합재료, 먹, 2021 .....	24
【작품 3】 일상의 질료들_1, 37.9×45.5cm, 장지에 먹, 2021 .....	26
【작품 4】 일상의 질료들_5, 32×41cm, 종이에 먹, 2021 .....	26
【작품 5】 일상의 질료들_2, 3, 4, 32×41cm, each, 린넨에 석영 및 혼합재료 먹, 2021 .....	26
【작품 6】 영켜있는 조각, 182×91cm, 린넨에 석영 및 혼합재료, 먹, 2021 .....	27
【작품 7】 불면 속 조각들, 192×50cm, 린넨에 석영 및 혼합재료, 먹, 2021 .....	29
【작품 8】 그리운 생각들, 60.5×91cm, 린넨에 석영 및 혼합재료, 먹, 2021 .....	30
【작품 9】 떠나간 자리, 91×117cm, 린넨에 석영 및 혼합재료, 먹, 2021 .....	31
【작품 10】 잘못된 경로, 194×130cm, 린넨에 석영 및 혼합재료, 먹, 2021 .....	32

## 도 판 목 차

- [도판 1] 거창 둔마리 벽화 고분, <주악천녀도>,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둔마리 산 298-1, 고려시대, 문화재 지정번호 사적 제 239 호 ... 4
- [도판 2] 심우도/십우도, 경상북도 금릉군 직지사 소장 ..... 12
- [도판 3] 프란체스카 마페이, <홀로페스네의 머리를 든 유디트>, 미상, oil  
on panel, 1650-60, 이탈리아 파엔자 시립미술관 소장 ..... 13
- [도판 4] Harmen Steenwijck, <Vanitas>, 37.5×38cm, oil on panel,  
1640 ..... 17

# I. 서 론

본인은 가족을 잃은 개인적인 경험과 트라우마를 통해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작업을 통해 삶과 죽음에 대해 고찰하며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소중한 이의 죽음이라는 경험과 트라우마는 감정을 가장 극대화시키며 일상을 뒤흔들었고 이때 곁에 있는 물건들이 떠나간 이를 가리키는 것 같았으며 애착심을 갖게 하였다.

이러한 경험의 바탕은 바니타스 정물화를 연상케 하였고 이를 통해 일상 속 죽음의 경험이라는 주제로 회화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도상을 통해 삶과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17세기 서양의 그림 양식인 바니타스 정물화를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하고자 기존 바니타스 정물화의 죽음을 통한 삶의 교훈적인 의미를 가르치는 태도가 아닌 죽음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삶의 일그러진 순간을 바라보는 태도를 표현하고자 했다.

본 논문은 정물화를 통한 삶과 죽음에 대한 회화연구를 중점으로 2021년 ‘뒤란의 조각들’이라는 석사학위 청구 전시 작품부터 2021년까지의 작업 중심으로 구성했다. 본론에서는 먼저 종교 속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를 통해 종교 속에서 죽음과 삶이 어떻게 태도를 표현되어 있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죽음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는 개인적이고 고통스러운 경험이다. 그렇기에 많은 종교에서는 이에 대한 고찰이 있었고, 이를 통해 삶에서 죽음에 대해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가르침과 교훈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들은 예술로 표현되었는데 특히 바니타스 정물화는 기독교 성경에 많은 영향을 받아 탄생한 미술의 장르이기에 기독교 성경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이어서 정물화 이미지 속 삶과 죽음에서는 도상과 상징의 의미와 바니타

스 정물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미술 속 도상과 상징 통해 정물의 이미지가 미술사에서 어떠한 영향을 끼쳤으며 어떻게 본 작업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서술하고자 하며 바니타스 정물화의 알레고리와 도상의 의미를 살펴보고 정물을 통해 바니타스 정물화가 삶과 죽음을 어떤 태도로 표현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이를 통해 본 작업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서술하고자 한다.

작품의 설명에서는 가족의 죽음과 트라우마가 본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고 이러한 영향이 작품에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서술하고자 한다. 또한 작품 속의 바니타스 정물화의 도상과 의미의 차용과 더불어 전통적인 도상이 아닌 개인적인 의미에서 나온 도상과 상징들을 키워드로 정리해 서술하며 재료 연구가 작품에 준 영향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본 논문을 정리하며 죽음이 삶에 주는 영향과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으며 이에 관한 작업의 표현 과정과 재료의 연구에 대해 비교 분석하며 앞으로 나아갈 작업의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본 론

### 1. 종교 속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

죽음이란 사건은 원래 어떤 생물 개체를 구성하는 전체 조직 세포의 생활 기능이 정지되는 것을 일컫는다. 그러나 인간에게 죽음이란 의미는 그렇게 단순한 생물학적 현상에 그치는 것은 아니며 죽음은 분명한 문화적 현상이다. 또한 인간은 타인의 죽음과 죽음의 의지를 해석하며 삶의 의미를 성찰하는 존재이며 죽음을 초래한 고통, 죽음에 대한 해석과 표상은 시간에 따라 변해왔다.<sup>1)</sup>

삶과 죽음은 항상 예측하기 힘들며 이를 통해 발생하는 감정들은 역시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렇기에 인간은 종교를 통해 이를 이해하며 받아드리고자 한다. 어느 곳에서도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은 성스러우며 종교적인 영역에 속하므로 모든 종교는 죽음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면서 죽음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sup>2)</sup> 또한 미술은 종교와 신화에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그 중 종교의 죽음에 대한 해석과 태도는 많은 이들의 삶 속에 영향을 끼쳤고 이는 다양한 예술작품으로 나타났다. 유럽에서는 17세기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유행한 ‘바니타스 정물화’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에 그려진 ‘거창 둔마리 벽화 고분’의 동실 서벽에 그려진 ‘주악천녀도’를 통해 알 수 있다.

<주악천녀도>는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둔마리에 있는 고려시대 고분의 동실 서벽에 그려진 벽화 속 묘사된 천녀 그림을 통해 벽화의 내용들은 피

1) 박영택, 『애도하는 미술』, 마음산책, 2014, p.28

2) 김정우, 「삶과 죽음에 관한 이해」,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인간학연구소, 인간연구(3), 2002, p.13

장자의 혼을 극락 혹은 천계로 인도하고 그곳에서 편안하게 머물 수 있기를 축원하기 위해 그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통해 당시 죽음에 대한 사상이 도교와 불교를 통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거창 둔마리 벽화 고분은 고려시대 사람들의 종교와 예술 세계를 엿 볼 수 있는 중요자료로 평가된다.<sup>3)</sup>



[도판 1] 거창 둔마리 벽화 고분의 동실 서벽 <주악천녀도>, 1987년 이전 촬영,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둔마리 산 298-1, 고려시대, 문화재 지정번호 사적 제 239호, 문화재 지정일 1974년 9월 5일.

이를 통해 종교의 죽음에 대한 태도는 예술로 나타나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미술과 신화 속 도상과 상징은 죽음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종교에서 나타나는 죽음에 대한 태도를 서술하고자 한다. 그 중 우리나라의 문화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종교인 유교, 도교, 불교, 기독교를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하며 특히 본 논문 속 작업들은 바니타스 정물화에 많은 영향을 받았기에 바니타스 정물화가 많은 영향을 받은 기독교의 성경을 중심으로 죽음에 대한 태도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3) 디지털거창문화대전 [www.geoghang.grandculture.net](http://www.geoghang.grandculture.net)

먼저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준 유교에서의 삶과 죽음에 대한 가치관을 살펴보면 인간은 우주의 일부이기에 죽음은 생명의 지속현상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발전의 양상으로 이해되었으며 삶과 죽음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는 하늘에 의해 지배된다고 여겨졌다.

이러한 사상을 통해 유교는 죽음을 하나의 필연적인 사실로 인정했으며 생명이 있으면 죽음이 있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고 이를 순응하는 것이 올바른 도리라고 생각했다. 또한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 사후에도 현세와 같은 삶을 지속한다고 믿었기에 상례에 중요한 의미를 두어 제사와 고사를 중요하게 여겼다.<sup>4)</sup>

이를 통해 유교에서 인간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멸의 어떤 요소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죽음을 생의 일부로 받아들였기에 죽음을 큰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으며 또한 삶과 죽음은 하늘에 달려 있으며 그렇기에 천명에 순종하는 태도를 통해 죽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다.

도교의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는 도(道)의 이해에 있다. 도(道)라는 개념 유교처럼 규범의 뜻이 아닌 영구불변의 우주의 본체를 의미하는 형이상학적 개념으로 세계의 구성요소를 크게 네 가지로 보았는데 하늘, 땅, 사람, 도(道)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여겼다.<sup>5)</sup> 또한 도는 만물생성의 근거이며 만물은 도에 속해 있기에 이는 생명을 죽이기도 하며 생명을 주는 작용을 한다고 여겼다. 또한 도교에서의 삶과 죽음에 대한 가치관은 도(道)에 의해 지배되며 이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긍정적 조화를 추구하고자 했다. 도교의 사상가인 장자에 의하면 삶과 죽음은 도(道)안에서 모든 사물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만 구별되는 것으로 장자는 죽음을 삶의 시초로 보았으며

---

4) 김정우, 「삶과 죽음에 관한 이해」,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인간학연구소, 인간연구(3), 2002, p.31

5) 이형국, 「도가적 사생관과 기독교적 사생관」, 신학지남 Vol.42 No.1, 1975, p.46

삶과 죽음은 같이 있기에 하나라고 여겼다.<sup>6)</sup> 또한 자신의 죽음을 가까이 느끼며 바르게 살아야 한다 여겼으며 인간은 항상 죽음을 의식하며 살기에 삶에서 죽음을 외면하거나 지워낼 수 없다고 여겼다. 이를 통해 도교에서는 죽음을 문제시하지 않았고 죽음을 자연 변화의 일부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교에서 인간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 욕망 때문에 고통을 당하며 세상의 모든 것이 허무한 것이며 무상한 것이라 여겼다. 인간은 세상에 대해 욕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 고통스럽기에 세상의 것을 떠나보내고 무(無)의 상태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떠나는 죽음을 일종의 해탈이라 여겼다. 이러한 해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생의 업이 없어야 하는데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러한 업이 청산될 때까지는 반복되는 윤회의 과정을 겪어 업을 완전히 없애야 인간은 열반에 이르게 된다 여겼다.<sup>7)</sup>

이런 의미에서 불교에서의 죽음은 자신을 멸망시켜 없애 버리거나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요소로 모든 문제의 해결 요소로 여겼다. 즉, 이 세상의 것이 허무하고 무상한 것인 만큼 세상에 대해 애착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 고통스럽고, 복잡하다 여겼다. 이러한 고통의 요소를 벗어나 무(無)의 상태를 추구하기 위해 떠나는 것이 죽음이라고 여겼고<sup>8)</sup> 또한 이는 자신의 존재를 잊는 무아의 경지이며 이 경지에서 진리를 깨닫게 되면 석가모니의 대아와 일체를 이룬다고 여겼다. 그러므로 불교에서는 죽음을 세상에 대한 욕심에서 벗어나 무아의 경지가 되는 일종의 해탈의 요소로 바라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9)</sup>

또한 불교는 생명이 다하여 오온(五蘊)<sup>10)</sup>이 흩어지더라도 그 개체가 지은

6) 김정우, 위의 책, p.32

7) 아놀드 토인비, 아더 케슬러 이성범 옮김, 『죽음 그리고 삶』, 범양사, 1980, p.34

8) 김정우, 위의 책, p.34

9) 김정우, 『삶과 죽음에 관한 이해』,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인간학연구소, 인간연구(3), 2002., p.34

10) 불교에서 인간을 구성하는 물질적 요소인 색온(色蘊)과 정신요소인 4온을 합쳐 부르는 말

업의 힘이 업력으로 남아 그 뒤 오온을 형성하므로 죽음을 단순한 끝이라고 보지 않았으며 이는 색즉시공(色卽是空)과 공즉시색(空卽是色)을 통해 이어진다. 불교의 색즉시공은 세간이 허공 속에 있음을 의미하고 공즉시색은 허공 속에 세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죽음의 바탕 위에 삶이 있고 삶은 죽음의 바탕 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sup>11)</sup> 이를 통해 불교에서 삶과 죽음은 함께하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으로 나뉘며 구약성경에서는 죽음에 대한 세 가지의 다른 태도를 지니고 있다. 먼저 구약성경에는 죽음을 통해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고 있는데 죽음은 개인 모두가 겪을 일이며 모든 인류의 공통된 숙명이기에 죽음이 정해져 있는 인생을 허무한 것으로 여겼다. 두 번째로 죽음을 하나의 지령으로 여겼는데 이는 구약성경에서는 죽는 것은 정해져 있으며 이는 야훼의 선물인 생명의 변경으로 인간이 성경 속 유일신인 하나님과 맺고 있는 그 관계 속에 포함되어 있기에 죽음은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고 따라서 죽음 또한 하나님의 지령이라 생각했다. 그렇기에 죽음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으며 이를 순순히 받아드려야 한다고 여겼다.<sup>12)</sup> 세 번째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죽음이라는 운명을 죄와 별로 연관지어 이야기하고 있는데 죽음을 성경 속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이브의 죄 아래 인간에게 주어진 벌이라 여겼다.

구약성경 속 창세에 관한 이야기인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은 죽음을 만들지 않으셨고 불사불멸하도록 인간을 창조하였지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긴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이브는 그 별로 유한한 생과 삶의 모든 고통을 얻게 되었고 이는 모든 후세 인류가 얻게 된 ‘원죄’로 여겼다. 이러한 원

---

을 의미한다. (두산백과 [www.doopedia.co.kr](http://www.doopedia.co.kr))

11) 박찬욱 기획, 『죽음, 삶의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운주사, 2011, p.17

12) 김정우, 『삶과 죽음에 관한 이해』,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인간학연구소, 인간연구(3), 2002, p.35

죄는 본성과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악일뿐만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길이다. 즉 인류 시조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왔다고 여겼으며 죽음을 도교에서처럼 자연적인 운명이 아니며 죄인에게 정해진 처벌이라고 여겼다.

그렇다고 해서 죽음을 부정적인 견해로만 여긴 것은 아니었는데 장수와 고령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들의 죽음으로 여겼다. 이는 구약성경의 아브라함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구약성경 속 죽음에 대한 관념은 허무함뿐만 아니라 성경 속의 유일신인 하나님의 처벌과 축복, 지령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기에 교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신약성경은 구약 속 예언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기록된 것으로 신약성경에서의 죽음에 대한 이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 구약성경에서 죽음은 인류의 원죄에 대한 결과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은 이러한 죄 속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며 죽음 후 부활로 인하여 인류는 원죄에서 해방되며 신약성경 속 예언에서는 후에 예수의 재림을 통해 인류의 영혼은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옮겨간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죽음은 죄의 처벌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의미로 바뀌 이해되었다. 또한 신앙적 의미 속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헌납한다는 의미로 보았으며 죽음은 하나의 위기이면서 영원한 존재를 향해 이끌어가는 현상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기독교 속 죽음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 크게 허무함, 처벌, 축복, 지령, 구원이라는 다섯 가지 성향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성경에서 기록된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은 교훈적인 성격을 지녔으며 이러한 성경의 교훈적인 성격은 교육적인 목적의 미술을 탄생시켰다.

중세 유럽에서는 성화 그리고 교회 벽화 같은 종교적인 장소에 있는 그림

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도상과 상징이 가득했으며 이는 그림 속 도상과 상징을 통해 문맹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한 교육적인 목적의 제작이었으며 나아가 17세기 유럽에서는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바니타스 정물화’가 등장하였다. 이렇게 등장한 바니타스 정물화는 삶과 죽음을 정물을 통해 바라보며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죽음 앞에 허무한 것인지를, 그렇기에 욕망을 버리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적인 의미를 담았는데 이는 구약성경의 허무함 그리고 처벌과 축복이라는 죽음에 대한 태도가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종교 속 삶과 죽음의 태도는 예술로 이어지며 삶과 죽음이라는 주제를 통해 예술과 종교가 서로 영향을 주며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종교 속 죽음에 대한 태도들은 우리가 삶 속에서 죽음에 대해 좌절하지 않고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 또한 알 수 있다.

## 2. 정물화 이미지 속 삶과 죽음

### 1) 도상과 상징

도상이란 (圖像, Icon) 종교, 신화 및 그 밖의 관념 체계상 어떤 특정한 의미를 지니고 제작된 미술품에 나타난 인물 또는 그 형상을 뜻하며 작품의 이미지나 모티프를 의미하는데 도상을 가장 일반적인 용법에 따라 말하자면 이미지, 형상 혹은 닮은 꼴이며 이 정의에는 비슷함이라는 개념이 묶여 있다. 즉 도상은 그것이 표시하는 것과 비슷한 기호이며, 종종 그것이 표시하는 물체와 동일시된다.<sup>13)</sup>

상징이란 눈이나 귀 등으로 직접 자각할 수 없는 무언가의 의미나 가치

13) 한국문화평론가협회, 『문학비평용어사전』, 국학자료원, 2006

등을 어떤 유사성에 의해서 물건이나 동물, 형상 등 이미지로 구상화하는 것을 말한다. 상징이 대표적으로 쓰이는 예는 신화이며 신화는 이미지를 구사하는 상징적 사고의 설화이며 인간과 역사, 운명에 관한 복합적인 사상이나 사회 인식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다.<sup>14)</sup>

이러한 도상과 상징은 예술과 종교의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미술작품 속 도상과 상징은 우리로 하여금 다양한 해석과 이해를 가능하게 하며 더욱 풍부하게 작품을 감상하도록 도움을 준다.

미술의 기원은 종교 및 신화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그렇기에 고대 미술 작품은 종교적 상징이나 우상, 공포와 동경의 표현이었다.<sup>15)</sup> 고대 그리스인들은 신화와 시는 일반적 진리를 말해주며 반면에 역사는 오직 특정한 개별적 진리를 보여준다고 여겨 시와 신화가 역사보다 더 진지하고 철학적인 것으로 여겼다. 그리하여 그리스인들은 특수한 역사적 사건을 신화를 통해 표현했으며, 그렇기에 신화적 상징이 담긴 그림은 언제나 역사적 그림보다 더욱 선호되었다.<sup>16)</sup> 이런 과정을 통해 의인화와 알레고리라는 도상이 나오게 되었으며 이는 미술의 긴 역사 속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고대 그리스를 넘어 중세 유럽에 기독교 사상이 뿌리 깊게 내리게 되면서 도상과 상징 대한 사상은 또다시 변하게 되었다. 중세 기독교 사상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상징으로 풀어 해석하였는데 사물이나 인류,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을 상징 또는 개념과 관념으로 간주했다. 신학자들은 상징을 두 가지로 의미가 부여된 존재적 사물 기호와 약속에 의거한 관습적인 기호,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고 이는 미술 속에서 두 가지 성향으로 나뉘었다.

첫 번째 성향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합리적 경향으로 이는 그림을 일종의

14) 한국사전연구사 편집부, 『종교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1988

15) 얀 비알로스토키(1973), 「도상학의 역사」 홍진경 옮김, 에케하르트 케멀링 편집, 『도상학과 도상해석학』, 사계절, 1997, p.18

16) 위의 책, p.19

언어로 보았으며 그림을 일종의 약속에 의거한 기호를 암호의 의미로 여겨 종교적 가르침의 전달을 목적으로 그림을 제작하였다. 두 번째 성향으로는 신플라톤주의의 비합리적이고 신비주의적 경향으로 이는 감상자가 상징적 그림을 경험하게 되면 더 높은 지식이 감상자에게 전달되면서 일종의 추상적 관념과 황홀경에 빠져 열광적 접촉을 느낀다고 여겼다.<sup>17)</sup>

이 두 성향을 통해 중세 미술에서는 상징적 그림이 일반적 기호 체계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상징적 그림은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도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교육적 역할을 위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성경뿐만 아니라 실제 사건을 그림으로 제작할 때도 관례적인 전통 도안과 도상에 따라 해석, 표현하였고 이를 통해 교훈적인 의미를 전달했다.

이러한 도상의 교훈 전달과 종교의 가르침을 위한 교육적 역할이라는 특징은 중세 유럽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도상은 종교의 경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많이 사용되고 등장했기에 도교를 비롯한 불교에서도 볼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도교의 산신도와 무신도 속 무신에 대한 도상들 그리고 불교의 불화를 통해 도상의 특징과 역할을 알 수 있다.

그중 불교는 경전이 길고 양이 많았기에 당시 글을 읽을 수 없는 이들은 배우는 것이 힘들었다. 그렇기에 절의 벽면에 그려진 불화들은 불교의 제의 과정과 절차, 금기와 처벌 등 불교의 경전 속 가르침을 더욱 쉽게 전달할 수 있었다. 그 중 ‘심우도(尋牛圖)’는 불교의 대표적인 도상으로 중생 교화의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많은 작가들에 의해 재생산되었다.

---

17) 위의 책, p.23



[도판 2] 심우도(尋牛圖)/십우도(十牛圖), 경상북도 금릉군 직지사 소장

‘심우도’는 십우도(十牛圖)로 불리우는데 이는 10단계의 수행단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수행단계는 불교의 수련 중 윤회의 고통을 벗어나는 각성 중 하나를 의미하며 ‘심우도’는 이러한 수행을 불교 선종에서 인간 본성의 회복을 목동이 소를 찾아 길들이는 것으로 비유한 불화의 도상이다. 이처럼 불교의 한문 경전을 이해하고 독해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으며 이로 인해 글을 못 읽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읽을 수 있더라도 오독과 오해를 할 수 있어 이를 막고자 제작된 것이 ‘심우도’와 같은 불화 도상들이다.

이를 통해 도상은 글을 읽지 못하더라도 그림을 통해 종교적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종교 속에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르네상스로 들어서게 되면서 미술은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엘리트 교육적인 성향을 띄게 되었고 도상과 상징들은 더욱 어렵고 비밀스러운 하나의 암호 코드처럼 발전되었다. 그러다 17세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종교의 도상 체계는 인문주의 주제와 상징이 사용되면서 새로운 알레고리들이 정확하게 정리되었고, 이러한 도상들은 예술가의 작품을 통해 조화롭게 공존하게 되었다. 또한 도상학 저술가인 헨리 반 드 월(H. van de Waal, 1952)은 네델란

드 특유의 역사적 도상의 형성에 대해 국가의 독립을 위한 전투장면을 그리기 위해 신화적 혹은 종교적 장면이 차용되었다고 한다.<sup>18)</sup> 이를 통해 작가들은 역사적 사실을 그리기 위해 종교적 신화적 장면을 차용하고 모티브 삼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18-19세기에도 이어졌고 이러한 신화적 모티프의 차용은 도상의 발전으로, 종교의 의미 전달과 교육의 역할에서 예술적인 상징으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술작품 속 상징과 도상은 작품에 대한 배경과 역사가 있어야 힘을 얻고 해석이 가능해진다. 예시로 베니스 출신의 바로크 화가 프란체스코 마페이의 ‘홀로페스네의 머리를 든 유디트 (이전에 세레 요한의 머리를 들고 있는 살로메)’ 를 통해 알 수 있다.



[도판 3] 프란체스카 마페이, <홀로페스네의 머리를 든 유디트>, 미상, oil on panel, 1650-60, 이탈리아 파엔자 시립미술관 소장.

이 작품은 접시 위에 사내의 머리를 올린 여인이 한쪽 팔에는 장검을 끼고 서있다. 사내의 머리를 자른 여인에 대한 성경 기록 중 마태복음에 기록

---

18) 위의 책, p.38

된 바에 의하면 접시 위에 올린 머리는 세레 요한이 맞고 머리를 접시 위에 두고 있는 여인은 살로메가 맞다. 그러나 살로메가 직접 세레 요한의 단두형을 집행하지 않았기에 살로메가 장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또한 장검으로 사내의 목을 벤 여인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유디트도 있기에 이 여인을 유디트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유디트라고 보게되면 접시가 문제인데 이는 유디트는 머리를 포대기에 집어넣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림 속 여인이 유디트인지, 살로메인지 확실한 해석을 위해서는 유형의 역사를 통해 해결을 할 수 있다.<sup>19)</sup> 그동안 그려진 살로메는 한 번도 장검을 들고 나온 적이 없었으며 유디트는 그림 속에서 드물지만 접시를 들고 나온 적이 있기에 이 그림을 유디트로 해석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미술작품 속 도상과 상징은 역사와 배경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도상과 상징의 해석은 역사와 배경이 있어야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도상과 상징에 따라 작품에 대한 다른 해석과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작품의 도상과 상징들은 역사와 배경이 아닌 오로지 작가의 의도를 바탕으로 해석이 되어야 한다. 만약 작가가 상징을 의도했지만 상징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 상징이라고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충분조건이 성립하지 않아도 작가의 의도가 상징의 필요조건이 된다.<sup>20)</sup> 또한 오늘날의 미술은 단순히 해석과 교훈 전달만이 아닌 감정적인 참여를 이끌고자 하기에 오로지 직관적인 방법만으로는 해석할 수 없으며 만약 작가가 전통적인 도상 같은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작품은 그 자체로도 은유적인 내러티브를 갖게 된다. 이를 통해 모든 세대에 전해지는 많은 상징들 중 각기 자신의 마음이 끌리는 것에 고유한 의미를 첨가하여 해석할 수 있을 뿐

19) 에르빈 파노프스키(1932), 「조형예술 작품의 기술과 내용 해석」, 노성두 옮김, 에케하르트 캐멀링 편집, 『도상학과 도상해석학』, 사계절, 1997, p.125

20) 데이빗 매닝스(1973), 「파노프스키와 그림 해석」, 노성두 옮김, 에케하르트 캐멀링 편집, 『도상학과 도상해석학』, 사계절, 1997, p.383

만 아니라, 과거를 이용하고 변형시킴으로써 새로운 상징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전래된 옛 상징은 그 뜻을 잃은 채로 남아 있기도 하며<sup>21)</sup> 누군가에게는 그 의미가 남아 유지되기도 한다.

## 2) 바니타스 정물화

바니타스(Vanitas)라는 용어는 헛됨이나 인생무상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따온 것으로 구약성경의 전도서 1장 2절에서 나오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허무하다 (Vanitas Vanitatum et omnia Vanitas)’라는 구절의 라틴어 문구에서 유래하였다. 용어 자체로는 영속되는 삶과 죽음의 알레고리(allegory)를 함축하고 있으며 여기에 고대 로마시대의 전장에서 죽은 자에 대한 짧지만 강렬한 애도와 살아남은 자들이 스스로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해 경고하는 외침이었던 ‘Memento mori (죽음을 기억하라)’의 교훈이 덧붙여지면서 바니타스는 ‘덧없음’의 복합적인 상징이 되었다.<sup>22)</sup>

바니타스의 회화로서의 기원은 중세 이후 <죽음의 춤 dance macabre> 연작의 유행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죽음의 춤 연작은 한스 홀바인이 그렸던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목판화를 라틴어 성경 인용구와 함께 에피그램인 격언시를 함께 묶어서 1538년 ‘시플라크르, 죽음의 역사적 얼굴’이라는 책으로 출판한 것이다.<sup>23)</sup> 그러나 이 그림은 독립된 작품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 종교적 성격이 짙은 삽화의 형식으로 제작된 것이며 정물화 형식은 아니었다.

정물화는 통상적으로 꽃이나 음식 등 움직이지 않는 사물을 구성하여 재

21) 루돌프 비트코버(1995), 「조형예술에서의 시각 상징 해석」, 이한순 옮김, 에케하르트 케멜링 편집, 『도상학과 도상해석학』 사계절, 1997, p.186

22) 정영한, 「바니타스 정물화의 동시대적 담론: 개념과 양식의 변용, 그리고 의미의 확장을 중심으로」, 한국기초조형학회, 기초조형학연구 제 14권 제 3호, 2013, p.288

23) 울리 분델리히, 김종수 옮김, 『메멘토모리의 세계』, 길, 2008, p.130

현한 그림을 말한다.<sup>24)</sup> 은유와 상징, 그리고 알레고리를 통해 일상적인 삶이 지닌 의미나 종교적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가 담긴 미술의 주제로 바니타스 정물화가 나타난 것은 17세기 네덜란드의 남서부 도시인 레이덴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지리적으로 가까운 독일에 주로 영향을 주어 유행하게 되었다. 이후 바로크 미술에서 바니타스 정물화는 쇠퇴하였지만 꽃, 과일을 소재로 하는 정물화, 또는 인물화의 방식으로 전해졌고 이후 초현실주의 회화에도 차용되었다.

바니타스 정물화의 가장 큰 특징은 도상으로, 도상학적 계보에 따라 바니타스 정물화는 그림 속 정물 도상을 통해 세속적인 삶 끝에 있는 피할 수 없는 죽음과 죽음으로 인한 삶의 덧없음을 의도적으로 표현하였다.

바니타스 정물화 속 도상의 구성요소와 그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의 알레고리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알레고리는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뜻으로 이를 나타내는 정물은 깨끗하게 썩은 해골이며 인간의 물리적 죽음의 이미지를 통해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을 담고 있다. 두 번째 알레고리는 ‘인생 무상’으로 주로 시간의 한정, 소멸 그리고 인간의 욕망, 지식, 탐닉이 모두 부질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로 시계, 책, 보석, 의복, 도자기 병, 악기 등의 정물이 있다. 세 번째 알레고리는 ‘모든 것의 결론으로서의 죽음’으로 영원하지 않는 삶, 그리고 부와 권력의 한계에 대한 내용으로 시든 꽃, 벌레, 깨진 술잔, 무기 등의 정물이 있다.<sup>25)</sup> 이러한 도상들의 의미를 통해 당시 네덜란드 화가들의 사물에 대한 인식과 바니타스 정물화 속 도상들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표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26)</sup>

또한 바니타스 어원 자체가 구약성서의 전도서의 내용을 인용한 것에서

---

24) 이한순, 「17세기 초 네덜란드의 꽃정물화 : 16세기 식물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미술사학연구회, 미술사학보 Vol.25, 2005, p.343

25) 정영한, 위의 책 <표1>, p.289

26) 최현미, 「17세기 화란과 회화의 기독교적 표상」,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p.141

교훈적인 의미의 바탕에서 나온 바니타스 정물화는 17세기 네델란드의 풍요로운 물질세계에 대한 반성과 죽음에 관한 성찰의 알레고리를 함축하게 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시각적 이미지에 의존하는 상태의 예술작품으로 제시됨에 따라 물질주의 비판이라는 교훈적인 의도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서의 탐닉의 대상이 되는 아이러니를 가지기도 한다.<sup>27)</sup>



[도판 4] Harmen Steenwijck, <Vanitas>, 37.5×38cm, oil on panel, 1640

이처럼 바니타스 정물화의 도상들이 그림 속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는 17세기 활동한 하르멘 스티네이크와 피터르 스티네이크 형제의 작품을 보면 알 수 있다.

스티네이크 형제의 작품은 해골을 중심으로 서책이나 다른 정물 등 바니타스를 상징하는 도상들을 배치시키는 양식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sup>28)</sup> 형제의 바니타스 정물화는 해골 도상과 서책을 통해 ‘인생무상’의 알레고리가 제시되는데 스티네이크 형제의 그림 속 서책은 인간의 세계가 지향하는 지적 요소와 가치를 상징하며 해골은 ‘메멘토 모리(죽음을 기억하라)’를 상징

27) 정영한, 위의 책, p.289

28) 정영한, 위의 책, p.290

한다. 이러한 서책과 해골 도상을 통해 형제의 작품은 인류문명의 어떤 것도 죽음 앞에 영원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함축한다.

이렇듯 바니타스 정물화는 도상을 통해 삶에 대해 교훈적인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으며 기독교의 성경에 따라 삶이 얼마나 허망하고 무너지기 쉬운 것인지, 죽음 앞에서 세상의 물질과 명예는 덧없는 기에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킬 목적으로 그려진 그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인생무상’의 교훈을 던져주었던 전도서에서 바니타스의 바로 다음 장은 다름 아닌 삶의 기쁨으로 이어진다.<sup>29)</sup> 이를 통해 바니타스 정물화는 많은 종교에서 이야기했듯이 삶과 죽음은 하나라는 뜻 속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삶 속에서 죽음으로 인해 어려움에 마주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종종 큰 슬픔에 빠져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시드는 꽃의 도상의 ‘태어난 것은 시간이 지나면 죽음으로 소멸한다’라는 바니타스 정물화의 알레고리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가장 보편적인 이야기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갑자기 다가온 빠른 죽음으로 인한 이별 앞에서 슬퍼만 하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애도를 통해 삶을 지속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죽음은 우리 누구에게나 다가올 보편적인 이야기이며 이러한 보편적인 이야기를 정물에 담은 바니타스 정물화는 개인적으로 가족의 죽음을 겪고 힘들어한 내게 큰 의미로 다가왔고 작업을 통해 더욱 연구해보고자 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바니타스 정물화와 도상에 관한 연구를 통해 물건과 도상, 상징들은 개인과 문화와 깊게 연관되어 있으며 많은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상징물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개인적인 죽음에 관한 이야기들이 도상을 통해 죽음에 대한 보편적인 이야기로 이어지게 하고자 정물 도상을 사용한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다.

---

29) 정영한, 위의 책, p.295

### 3. 작품 설명

본 연구 작품들은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작된 죽음에 대한 고찰과 이야기를 상징과 도상에 대한 이론과 바니타스 정물화를 바탕으로 작품으로 풀어내고자 했다. 그러므로 본 작품들은 바니타스 정물화의 도상과 상징의 개념으로부터 시작했으며 바니타스 정물화의 정물을 늘어놓는 방식을 차용했기에 작품 속 화면에는 정물들이 가득하다.

그러나 본 논문 속 작품에는 기존 바니타스 정물화 같이 죽음을 통한 삶의 교훈적인 의미를 가르치고자 하는 태도가 아닌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죽음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삶의 일그러진 순간을 바라보고자 하는 태도와 의미를 담고자 했기에 전통적인 의미의 도상, 상징들과 개인적인 의미의 도상과 상징물들이 그림 속에 같이 공존하고 있다.

전통적인 도상과 상징은 이미 알려진 암호 코드이기에 해석이 쉬워지며 도상이 담고 있는 이야기가 보편적인 이야기일 경우 해석은 더욱 쉬워진다. 그러나 개인적인 이야기들과 도상, 상징들은 해석이 어려워지며 그렇기에 개인적인 도상과 상징들이 작품 속에서 전통적인 도상들과 함께 죽음과 삶을 상징한다는 설득력이 있으려면 작품의 속 분위기가 죽음에 가깝다고 느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본 연구 작품들은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이야기이기에 전통적인 도상만으로는 이를 표현할 수 없었다. 작품 속 개인적인 의미의 도상과 상징물들이 죽음이라는 바탕 속 경험과 의미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림 속 분위기가 죽음을 나타낸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도상과 상징 연구를 통해 알게 되었고 이를 위해 재료 표현기법을 연구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작품 속 화면들이 전체적으로 죽음의 쓸쓸한 분위기가 느껴진다면 작품 속 정물과 도상들이 설득력과 힘을 얻을 수 있겠다고 여겨 재료와 필법

을 통해 그러한 분위기를 내고자 했다.

장례를 겪고 난 뒤 죽음을 먼저 생각나게 하는 것은 수의였으며 그렇기에 다른 이들이 작품을 보았을 때 죽음의 분위기를 느끼게 하고자 그림의 바탕을 종이가 아닌 수의를 연상시키는 천을 택했다. 그러나 수의에 쓰이는 삼베를 사용했을 경우 붓으로 선을 긋기 힘들었으며 삼베 위 그림이 너무 뻗뻗하고 경직되어 보여 삼베와 비슷한 색감의 린넨 천을 사용하게 되었다.

또한 건조하고 오래된 벽화 같은 느낌을 주고자 호분과 석영가루를 사용했다. 석영가루는 입자가 굵기 때문에 화면에 거칠고 건조한 느낌을 주며 동시에 빛을 받게 되면 입자가 빛에 반사되어 은은하게 반짝이는 느낌을 주어 전통 토분 벽화에서도 사용되기도 하며 건축 바닥재에도 사용된다. 이러한 석영가루와 호분을 섞어 아교를 포수 한 천 위에 칠해 배경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벽화 같은 배경이 연출 되었다.

이렇게 건조한 벽화 같은 배경 위 건조하고 얇은 선묘 필법으로 정물을 묘사했다. 오로지 선으로만 묘사한 정물은 얇고 건조한 느낌의 선으로 인하여 집착스러우며 강박적인 모습이 되었으며 색이 없는 흑백 화면은 죽음이 휩쓸고 간 폐허 같은 분위기를 연상시켰다.

이러한 재료의 활용을 통해 그림 속 화면의 분위기는 건조하고 강박적이며 쓸쓸한 느낌이 되었으며 그림 속 모든 정물 도상들은 쓸쓸한 분위기 속에 존재하기에 화면 속 전통적인 도상과 같이 공존하고 있는 개인적인 도상과 상징물들 또한 죽음이라는 주제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게 되었다. 또한 선묘로만 정물을 묘사한 다른 이유는 동시대에 해석된 다른 바니타스 정물과 다른 점을 가지고자 위함이었다.

동시대 미술에서 바니타스의 해석은 주로 유화나 사진으로 해석되었는데 이는 정물의 도상이 정확히 전달되어야 하며 그렇기에 사실적인 묘사와 색채가 필요했다. 그러나 본 작품들은 인생무상, 시간의 변화로 맞이하는 죽

음, 물질주의 비판 등 전통적인 바니타스의 주제가 아니라 개인의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의 극복이 주제이기에 색이 없는 흑백의 선묘를 통해 정물을 묘사해 죽음에 대한 교훈적인 의미 전달이 아닌 죽음에 의한 트라우마와 대면을 이야기하고자 했다.

이렇게 보편적인 이야기가 아닌 개인의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를 작업의 주제로 생각하게 된 계기는 뉴스 보도로 시작되었다. 뉴스 보도에서 종종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는데 사건으로 보도된 죽음은 보편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 어떤 죽음도 보편적이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모든 죽음은 얼핏 보기에는 국가, 혹은 사회나 집단의 문제로 보이지만 가까이 들여다보게 되면 죽음은 개인적인 일이며 그중 가족의 죽음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며 동시에 피할 수 없는 상처이고 슬픔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족의 죽음이라는 개인적인 경험은 트라우마가 되었고 본 연구를 통해 ‘가족의 죽음’이라는 트라우마를 간직하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9세기 후반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인 지그문트 프로이트 ((Sigmund Freud, 1856~1939)<sup>30)</sup>는 트라우마를 정신생활에서 짧은 기간 내에 엄청나게 강한 자극의 증가를 가져오는 외상적인 체험이라고 정의한다.<sup>31)</sup> 정신분석학에서는 이러한 트라우마로 인해 ‘반복 강박’이 나타나곤 하는데 정신 병리학 차원에서 이는 억제할 수 없는 과정을 가리킨다. 반복 강박은 환자의 고통스러운 상황에 능동적으로 편입하면서 아주 오래된 경험을 반복한다. ‘반복’은 우연한 현상이 아니며 과거의 의미 있는 경험 또는 외상이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 의식이 되돌아온 것이기 때문이다.<sup>32)</sup>

30) 지그문트 프로이트 Sigmund Freud, (1856~1939) 오스트리아의 신경과 의사, 정신분석의 창시자이자 히스테리 환자를 관찰, 인간의 마음에는 무의식이 존재한다고 하였으며 꿈, 착각 및 해학과 같은 정상 심리에도 연구를 확대하며 심층심리학을 확립하였다.

31) 지그문트 프로이트, 임흥빈. 홍혜경 옮김 『정신분석강의, 열린책들』, 2003, pp.374-375

32) 장 라플랑슈, 장 베르트랑 폰탈리스 공저, 임진수 옮김 『정신분석사전』, 열린책들, 2005, pp.226-270

가족의 죽음을 다루는 예술가들은 이러한 죽음의 트라우마를 각자의 방식으로 작품에 표현한다. 그들이 목격한 ‘가족의 죽음’의 공포감은 해소되지 못했으며 이후 무의식 속에 관념적인 죽음의 형상이 고착되어 트라우마로 남았다. 그렇기에 가족의 죽음을 반복적으로 형상화하며 작품에 표현하는 것은 트라우마로 남은 감정을 방출하려는 욕구의 적극적인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종종 가족의 죽음을 표현하는 작가들은 죽음이 발생한 장소나 사건, 죽음에 초점을 맞춰 표현하곤 하는데 이때 그 트라우마가 어디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고 어떻게 표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sup>33)</sup>

본인의 트라우마는 죽음의 방식이나 장소가 아닌 고인의 물건에 나타났 다. 고인의 유품, 머물던 장소에 있던 물건들은 고인을 나타내는 것 같았고 한동안은 물건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 힘들어 청소에 강박이 생겼다. 후에 이런 강박은 오히려 물건에 대해 애착심과 집착으로 변했고 트라우마로 인해 물건들을 집착하면서 강박적인 성격으로 변해갔다. 그러다 트라우마로 인한 물건들에 대한 집착은 그림으로 이어졌고 이때 바니타스 정물화를 떠올리게 되어 이를 통해 일상 속 죽음의 경험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시작했다.

바니타스 정물화의 특징 중 하나는 시체를 통해 죽음을 직접적으로 묘사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신 과일이나 꽃, 해골, 멈춰 버린 시계, 유리잔, 촛대, 촛불, 깃털 등의 정물을 통해 죽음을 상징하며 여전히 살아있음을 강조 하는 정물화의 영문명 ‘still life’와 달리 사물의 죽음을 강조하는 장르로서의 정물을 지칭한다.<sup>34)</sup>

본 작업에는 기존 바니타스 정물화의 죽음을 통한 삶의 교훈적인 의미가 아닌 개인적인 경험으로부터 나온 죽음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삶의 일그러진 순간을 바라보고자 하는 태도와 의미를 담아 작품들을 작업했다.

33) 르네 웰렉, 오스틴 워렌 공저, 이경수 옮김 『문학의 이론』, 문예출판사, 1989, p.102

34) 박영택, 『애도하는 미술, 마음산책』, 2014, p.174

이를 표현하기 위해 전통적인 도상 속 정물들이 아닌 깨진 조각상, 버려진 물건, 새의 사체 등 직접적으로 죽음을 가리키는 물건들을 바니타스 정물화의 도상들과 함께 그림 속 화면에 배합했으며 이러한 이미지들은 주로 길가에 버려진 것들로 직접 사진으로 찍어 수집하였다.

이렇게 작품 속에 나타나는 바니타스 정물화의 도상이 아닌 수집한 이미지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부서진 조각상을 비롯한 절단된 신체, 죽은 새의 사체 등 시체를 나타내는 훼손된 정물들의 이미지들이며 다른 하나는 꽃, 부패한 과일, 버려진 화분 등 쓰레기장에서 발견한 정물들이다.

먼저 작품 속에 나타나는 부서진 조각상 등 훼손된 이미지들은 작업을 시작했을 때 고가구거리 근처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수집하게 되었다. 고가구거리에는 가끔 상품으로 팔 수 없이 훼손된 조각상이나 옛 가구들을 길에 버리곤 했는데 그때 조각상이라는 정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조각상은 사람의 형상을 한 일종의 인형으로 현실에서 볼 수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을 표현하고 있다고 느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조각상의 인간과 유사한 형상은 우리에게 유사성과 친밀함을 주어 우리의 시선을 흡수시키며 시선을 앗아간다. 또한 변형된 조각상, 마네킹 등 인형들은 과거 전통미술에서 고난과 고통, 죽음의 장이었던 변형된 인체들을 표현하며 이러한 인간과 유사한 형상들은 인간의 모습과 유사하지만 인간의 신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작품에 대한 ‘나의 직접적인 이입’을 방해한다.<sup>35)</sup> 그렇기에 작품 속 인체를 대변하는 상징물로 조각상을 그려 이를 변형시키는 것은 인체의 훼손을 의미하지만 직접적으로 인체를 훼손시킨 이미지가 화면 속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에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잔인한 장면을 피하면서 ‘훼손된 신체’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다 여겨 훼손된 얼굴의 이미지를 【작품 1】 ‘무제’에서 얼

---

35) 김원방, 『잔혹극 속의 현대미술-몸과 권력 사이에서』, 도서출판예경,1998, p.83

굴이 부서진 조각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작품 1】 무제, 80.5×117cm, 린넨에 석영 및 혼합재료, 먹, 2021

【작품 2】 기도와 석류, 91×117cm, 린넨에 석영 및 혼합재료, 먹, 2021

【작품 1】은 절단된 신체를 통해 직접적인 죽음을 목격하게 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자 했다. 산산조각 난 인체들은 근, 현대 미술에서는 자아 파괴와 사회의 해체를 조명하기 위해 그려지곤 했다.<sup>36)</sup> 그러나 【작품 1】속 잘려진 머리는 죽음으로 사회에서 떨어져 나간 이를 표현하고자 했으며 죽음으로 이야기를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이에게 수직의 형태로 그림을 그려 아이콘 적이며 주관적인 형태를 주고자 했으며 머리를 화면 밑에, 그리고 머리 위에는 나뭇가지를 박아 머리가 낙하한 느낌을 주고자 했다. 이를 통해 죽은 이를 목격하면서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보고 대답을 듣기를

36) 린다 노틀린, 정연심 옮김, 『절단된 신체와 모더니티』, 조형교육, 2001, p.37

원하지만 실제로는 들을 수 없음을 표현하고자 했다.

이렇게 【작품 1】처럼 변형된 인형의 모습을 통해 인체를 비유한 작업으로 【작품 2】가 있다. 【작품 2】는 전통적으로 죽음을 상징하는 도상인 석류와 강물을 통해 바니타스 정물화의 도상을 통해 죽음을 나타내는 점을 차용했으며 피에타의 일부를 화면 속 정사각형 안에 그려 화면 분할을 통해 신체를 절단하고자 했다. 피에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처형 다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의 시체를 안고 있는 조각상으로 기도와 석류 속 피에타 장면은 예수의 늘어진 시신과 마리아의 손만을 보여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늘어진 시체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손 이미지를 통해 죽음은 하나의 위기이지만 허무를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것이 아닌 영원한 존재로 이끌어간다는 기독교 속 죽음에 대한 태도를 통해 떠나간 이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자 했으며 이렇게 절단된 신체 이미지들은 【작품3, 4, 5】 ‘일상의 질료들’이라는 연작에서도 이어진다.

질료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용어로, 물체의 생성과 변화의 바탕이 되는 재료를 의미한다.<sup>37)</sup> 【작품3, 4, 5】 ‘일상의 질료들’은 죽음으로 인해 느끼는 일상 속 불안들을 표현하고자 했다. 가족의 죽음 뒤 살아남은 사람들의 불안한 일상의 질료는 죽음이라는 의미를 담고자 했으며 이 연작에는 새의 사체, 변형된 얼굴들, 절단된 신체와 같이 정물들을 배치했다. 바니타스 정물화는 죽음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도상을 통해 이야기하기에 해골 이미지가 아닌 신체를 그리지 않으며 그렇기에 절단된 신체를 그리게 될 경우 죽음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게 된다. 그러므로 절단된 신체를 그릴 경우 개인적인 죽음을 표현하게 된다고 생각했다.

---

37) 서울대학연구소, 『교육학용어사전』, 하우동설, 2011



【작품 3】 일상의 질료들\_1, 37.9×45.5cm, 장지에 먹, 2021

【작품 4】 일상의 질료들\_5, 32×41cm, 종이에 먹, 2021

【작품 5】 일상의 질료들\_2, 3, 4, 32×41cm, each, 린넨에 석영 및 혼합 재료 먹, 2021

【작품 3, 4, 5】 중 절단된 손과 손가락이 그려진 【작품 4】 ‘일상의 질료\_1’ 과 【작품 5】 ‘일상의 질료\_3’은 가장 개인적인 이야기를 담은 것으로 화면 속에 절단된 손과 손가락들은 모두 고인이 된 본인의 가족의 손을 의미한다. 손은 우리의 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신체 요소이며 손가락의 지문은 신분 증명에 필수 요소이다. 유족들은 장례 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사망 증명이며 이를 통해 고인의 신원은 말소한다. 그러나 사회에서 고인은 지워져도 남은 사람들에게는 고인의 신원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다. 【작품 3, 4, 5】 에서는 절단된 신체와 뒤틀린 신체 이미지들을 바니타스의 도상들과

배합하여 도상들 위를 떠다니는 절단된 신체들을 통해 일상 속에서 불안과 그리움을 주는 죽음을 이야기하고자 했다. 또한 직접적으로 죽음을 이야기하는 정물로서 절단된 신체 이미지만이 아닌 새의 사체 이미지 또한 활용하고자 했으며 그 중 【작품5】 ‘일상의 질료\_4’는 신체가 아닌 새의 사체 이미지를 활용했는데 로드킬 당한 새의 사체 위 과일과 꽃을 그린 것으로 과일과 꽃을 새의 사체 위에 올려놓음으로써 새의 사체를 접시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연출하고자 했으며 이를 통해 죽음으로 인해 일상이 불안해졌음을 표현하고자 했다.



【작품 6】 영켜있는 조각, 182×91cm, 린넨에 석영 및 혼합재료, 먹, 2021

【작품 6】 영켜있는 조각은 【작품 5】 ‘일상의 질료들\_4’처럼 새의 사체 조각들, 깃털 등을 하나의 덩어리 모양으로 그린 작품으로 이 작품을 그리기 위해 로드킬 당한 새의 이미지들을 많이 수집했다. 로드킬 당한 새들의 시체는 고양이 같은 동물에게 사냥당한 시체와 다르게 바퀴로 인해 사체가 끌린 자국이 생기며 바퀴 자국을 따라 보면 피와 깃털이 영켜 길을 이루고 있다. 【작품 6】 은 로드킬 당한 새의 사체를 박제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에

서 시작되었으며 이렇게 바퀴에 끌려다닌 시체에 나온 깃털들을 직접 찍은 다음 사진 이미지를 모아 그림으로 하나의 박제를 표현하고자 했다. 박제란 원래 동물의 가죽을 벗기고 그 안에 솜이나 대팻밥 같은 다른 물질을 넣어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를 만드는 표본, 혹은 그렇게 만드는 기술을 일컫는 말이다. 즉 박제는 죽은 것이 산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체로 만든 인형이다.<sup>38)</sup> 본 작품은 로드킬 당했던 새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기에 어쩌면 박제라고 할 수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본인이 박제를 생각했던 이유는 가짜이지만 실체를 대리한다는 점에서 부재를 통해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었고 수습하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만드는 무언가는 실제의 모습을 대변할 수 없지만 부재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사체의 이미지들을 모아 덩어리를 만들었다.

---

38) 박영택, 위의 책, p.189



【작품 7】 불면 속 조각들, 192×50cm, 린넨에 석영 및 혼합재료, 먹, 2021

두 번째로 쓰레기장에 있는 정물과 시든 꽃 등 이미지를 수집 후 바니타스 도상을 차용하여 수집한 이미지들과 배합한 작업을 했다. 꽃과 벌레, 과일들은 17세기 바니타스 정물화의 전통적인 도상으로 ‘모든 것의 결론으로서의 죽음(Mors omnia vincit)’이라는 알레고리 속 영원하지 않는 삶을 비유했으며<sup>39)</sup> 이러한 도상 알레고리는 동시대 미술에서도 시간과 죽음을 나타내는 도상으로 사용되며 이어지고 있다. 【작품 7】 ‘불면 속 조각들’은 시든 꽃과 썩은 과일, 벌레 등 이러한 바니타스의 도상과 그 의미를 차용하며 만든 작품이다. 영원하지 않는 삶은 당연한 진리의 말이지만 한편으로 죽음이란 이별은 두려운 일이라 무서운 뜻으로 다가온다. 죽음은 우리의 일상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사건이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불안을 갖는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불안은 자신이 세상에 사라질 것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곁에 있는 이의 사라짐, 이로 인해 오는 관계의 훼손과 ‘자신의 존재 능력을 죽음이라는 최대의 한계상황 앞에서 상실하지 않을까’에서 오는 불안이다.<sup>40)</sup> 본 작품에서 시든 꽃과 벌레들은 이미 벌어진 ‘영원하지 않는 삶’을 의미하며 그로 인해 닥쳐온 불안을 의미한다. 또한 ‘영면하다’라는 말처럼 잠이란 죽음을 비유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하다. 죽음이 두렵고 피하고 싶어 잠에 들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기 위해 ‘불면 속 조각들’이라는 제목을

39) 정영한, 위의 책 <표1>, p.289

40) 박영택, 위의 책, 2014, p.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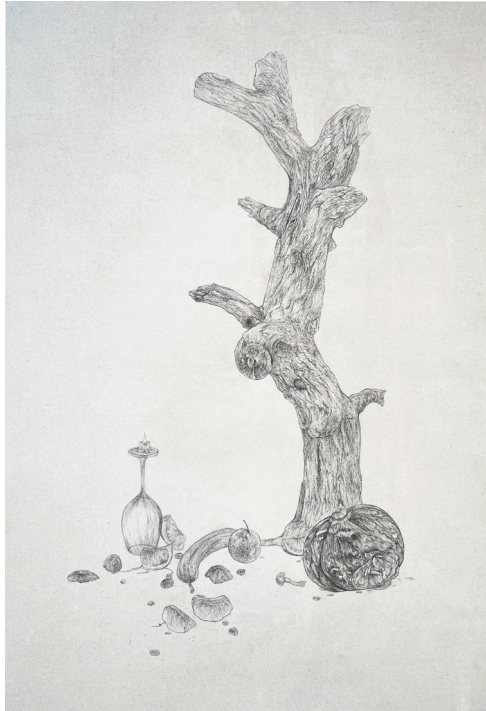
통해 이러한 불안 요소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라는 의미를 표현하고자 했다.



【작품 8】 그리운 생각들, 60.5×91cm, 린넨에 석영 및 혼합재료, 먹, 2021

【작품 8】 ‘그리운 생각들’이라는 작품에서도 바니타스 정물화의 도상의 의미를 차용하여 꽃과 과일을 그렸으며 화면 속 정물들을 떠다니는 물고기를 통해 그림을 하나의 어항으로 보이도록 연출하고자 했다. 또한 촛대를 화면에 배치해 두었는데 촛대 역시 바니타스에서 세속적인 업적들은 하룻밤 꿈처럼 사라질 것을 암시하는 정물로써 인생무상을 의미한다. 그러나 바니타스 정물화에는 물고기가 등장하지 않으며 물고기는 바니타스 정물화의 전통적인 도상이 아니다. 【작품 8】에서 물고기는 개인적인 의미의 도상으로 고인이 된 가족을 상징한다. 본 연구자의 가족들은 모두 오랫동안 물고기들을 키웠었다. 그렇기에 고인의 죽음 후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물고기와 어항을 볼 때 고인과 함께한 가족을 떠올리곤 했다. 우리에게 그리운 생각들이란 그저 죽은 이와 의 기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죽은 이가 살아있

던, 같이 지냈던 그때의 삶을 의미하기도 한다. 본 작품들은 어항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때의 삶에 대한 생각들을 바라보지만 이는 곳 사라질 순간들을 표현하고자 했다.



【작품 9】 떠나간 자리, 91×117cm, 린넨에 석영 및 혼합재료, 먹, 2021

【작품 9】 ‘떠나간 자리들’ 속 고목과 다른 정물들은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들이며 이는 모두 사진으로 찍어 수집한 이미지들을 그림에 옮긴 작업이다. 누군가 이사를 하며 건물이 허물어지기 전 근처에 있던 음식물 쓰레기들은 쏟아져 길가에 나뒹굴고 있었으나 그 누구도 선뜻 치우지 않았고 며칠을 길가에 굴러다니고 있었다. 누구도 치우지 않는 이러한 모습은 죽었지만 관심을 받지 못하는 모습들을 떠올리기도 하고 누군가 떠난 뒤 혼란스럽게 남아 죽음의 두려움을 곱씹는 본인의 모습이 겹쳐 보이기도 했다. 또한 과

일은 바니타스 정물화의 도상 중 하나이며 ‘씩어가는 과일’ 도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죽어가는 인간의 모습을 주로 의미하며 어쩔 수 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 맞이하는 죽음을 의미한다.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자연 속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이는 죽음은 자연의 섭리이며 삶과 죽음은 하나라는 뜻이기에 도교에서는 슬퍼할 의미가 없다고 한다. 도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해 갈 수 없고 자연의 일부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시간이 지남으로 죽음은 내가 겪을 미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기에 【작품9】에서 썩어가는 과일 같은 바니타스의 도상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죽음이라는 의미 담으며 고목과 쓰레기가 모여 있는 모습을 통해 시간에 따라 누군가가 죽음으로 떠난 자리와 후에 내가 떠난 뒤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했다.



【작품 10】 잘못된 경로, 194×130cm, 린넨에 석영 및 혼합재료, 먹, 2021

【작품10】 ‘잘못된 경로’는 잘못된 애도를 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작품으로 지금 내가 하는 행위들이 올바른 애도인가 하는 의문에서 시작된 작업이다. 애도란 의미 있는 애정 대상을 상실한 후에 따라오는 마음의 평정을 회복하는 정신과정을 의미한다.<sup>41)</sup> 애도의 시간은 우리에게 죽은 자들이 떠나고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주며 그로 인해 인간은 죽음에 대한 더 많은 앎과 성찰, 애도를 통해 삶을 더 존중하게 된다.<sup>42)</sup> 작품 속에는 2021년 제작한 작품 속 모든 정물의 요소를 넣었으며 조각상과 버려진 식물의 이미지들이 배합되어 화면에 배치되어있다. 화면 속 중앙 위쪽에 배치된 날개 이미지는 【작품6】 에서처럼 새의 박제를 의미하기도 하며 잘못된 곳에도 도착한 모습을 의미하고자 했다. 화면 속 날개 밑에 있는 제단은 날개를 위한 제사를 지내는 모습처럼 연출하여 이 작품의 주제를 제단으로 표현했다. 버려진 물건들과 썩은 과일들은 이 제단이 버려진 제단임을 암시하며 낡고 버려진 제단 주변에는 녹은 촛농이 있는 버려진 병과 어항의 장식품, 썩은 과일들이 있으며 이러한 낡고 버려진 제단을 통해 잘못된 애도를 하고 있다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다. 또한 우측 하단부에 위치한 가족상은 천주교에서 주로 쓰이는 가족을 상징하는 조각상으로 깨지고 상한 가족상은 죽음으로 인해 해체된 가족을 의미하며 버려진 화분 속 서서히 시들어가는 식물들은 바니타스 정물화 속 식물의 의미를 차용했으며 죽음으로 인해 시간이 지나 버려지고 사라질 모습들은 표현하고자 했다. 이처럼 그림 속 정물들은 모두 썩고 메마른 잔해들이며 이는 시간이 지나도 지울 수 없는 죽음 이후의 통증과 후유증을 표현하고자 했다.

그림은 허구의 공간으로 작가가 직접 만드는 가상의 공간이다. 본 연구자는 이 공간을 애도의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었으며 죽음을 상징하는 도상들을 모아 제단을 만들 때 이것이 올바른 애도의 방식인가 하는 의문이 생겼

41) 미국정신분석학회, 『정신분석용어사전』,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2

42) 박영택, 위의 책, p9

다. 애도라는 것은 평정을 되찾아 일상을 회복하는 단계인데 지금 이 공간들은 트라우마들만이 존재하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완성되고 그림을 마주했을 때 나에게 있는 트라우마를 마주 보는 것으로도 애도가 되며 평정을 되찾는 단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으며 잘못된 곳으로 도착하더라도 문제를 올바르게 바라본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단계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작업과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이번 연구와 작업을 통해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또 다른 재료와 기법, 그리고 상징과 도상을 연구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작업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반성을 통해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정할 수 있었다.

재료와 기법을 통해 건조한 쓸쓸한 죽음의 분위기를 통해 죽음 뒤 남겨진 삶을 표현할 수 있었지만, 색이 없고 얇은 선들만 존재하는 화면은 회화적으로 극적인 효과가 없으며 이로 인해 화면의 구성이 단순해 보이고 지루해 보일 수 있다. 그렇기에 【작품10】에서는 이를 극복하고자 날개 부분을 호분으로 덧칠해 한번 가리고 다시 그 위에 다른 모양의 날개를 덧그리는 식으로 여러 모양의 날개를 겹쳐 그려 그림에 깊이감을 주고 지루함을 없애고자 했다. 그러나 색이 있는 그림과 비교했을 때 지루해 보일 수 있기에 흑백 화면의 효과적인 연출 방법에 대해 앞으로 더욱 연구해야 한다.

작품 속에 개인적인 의미의 도상들을 만들기 위해 길가에 버려진 물건들을 사진으로 수집했으며 버려진 물건들은 대개 흙집이 나거나 부패한 모습이었다. 이러한 정물의 모습들은 바니타스 정물화의 도상 중 시든 꽃, 벌레 등과 함께 그려졌을 때 죽음이라는 주제가 더욱 강하게 표현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작품 7】, 【작품 8】, 【작품 9】 속 정물들 같은 경우 작품 속 정물들은 길에서 수집한 버려진 이미지들은 바니타스 정물화의 도상과 그 의미가 겹치게 된다. 이처럼 바니타스 정물화의 도상 혹은 비슷한 이미지의 도상을 사용하게 되면 작품의 주제가 ‘트라우마의 대면’보다 ‘바니타스

의 반복'이라는 주제로 오독이 될 수 있다. 그렇기에 화면 속 정물의 선택과 연출은 더욱 조심하고 연구해야 할 부분이다.

### Ⅲ. 결 론

본 논문은 정물화를 중심으로 정물화를 통해 삶과 죽음에 대한 연구와 이를 통해 개인적인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의 표현과 극복을 중심으로 서술해 보았다.

가장 소중한 이의 죽음은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이며 죽음 이후의 삶은 이전과 같아질 수 없다. 죽음으로 인해 생기는 트라우마와 감정들은 우리의 일상을 바꾸며 삶을 뒤흔든다. 이때 물건들은 많은 이야기를 담는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트라우마로 인해 아름다운 동화 같은 추억이 아닌 상실로 인해 괴로움을 담게 되며 그렇게 흠집 난 채로 남겨진 물건들은 이러한 사건을 상징한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경험과 생각을 통해 작업을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 죽음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할지, 죽음이란 주제를 작품으로 만들 때 얻게 될 경험이 무엇일지에 대해 고민을 하며 연구를 시작했다. 이를 위해 주변의 종교와 미술사에서의 죽음에 대한 태도들을 연구했다.

먼저 종교 속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의 연구를 통해 많은 종교들은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고찰과 사상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 중 삶 속에서 많이 영향을 받은 종교들을 중심으로 삶과 죽음에 대한 종교들의 태도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논문에 서술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종교의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는 예술로 이어지며 삶과 죽음이라는 주제를 통해 예술과 종교는 서로 발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중 바니타스 정물화는 죽음에 대한 기독교의 교훈적인 태도를 도상을 통해 표현했으며 이는 동시대에 까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이번 연구를 통해 알게 되었다.

두 번째로 바니타스 정물화의 중요한 부분은 도상과 상징이라는 것을 이

번 연구를 통해 알게 되었다. 또한 도상과 상징은 모두 미술사에서 중요한 부분이며 종교와도 깊은 관련이 있기에 도상과 상징의 알레고리를 중심으로 바니타스 정물화 서술하였다. 도상과 상징은 바니타스 정물화 이전에도 종교의 이해와 가르침을 위해 존재하던 언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미지를 통한 언어는 다양한 사용과 발전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본 작품에서 도상과 상징을 통해 죽음과 트라우마를 정물 도상으로 표현하고자 했으며 바니타스 정물화의 전통적인 도상과 상징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대표적 이미지, 또 다른 일상에서의 죽음에 대한 표현들 그리고 개인적인 트라우마를 반영한 도상 이미지와 상징을 연구를 통해 만들어 작품에 담아내고자 했다.

본 작업을 위한 이론과 재료 연구 과정들은 죽음에 대한 태도를 위한 과정이었음을 느꼈으며 이를 통해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와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트라우마와의 대면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림은 대개 평면으로 어딘가 벽에 걸려 바라보게 된다. 작업을 하면서 스스로 본 연구 작품들을 바라보는 일이 많았는데 이는 죽음에 대한 개인적인 트라우마를 관찰하면서 죽음에 대해 이해하고 받아드리는 경험이 되었다.

본 논문 연구를 통해 트라우마를 대면하면서 죽음이 병행하는 삶을 바라보고 깨닫게 되었고 나아가 죽음에 대해 깊이 애도를 하게 되는 경험이 되었으며 누군가를 잃는 일은 모두에게 지워지지 않는 큰 상처이며 또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결국 누구나 겪을 보편적인 일이란 것 깨닫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 작품들이 죽은 이들을 애도하는 또 하나의 과정 중 하나가 되고자 하며 앞으로의 작업들이 이번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삶속에서 죽음으로 인해 괴로웠던 경험을 한 이들의 일상에서의 치유가 되는 작품으로 발전을 하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 <사이트>

두산백과 [www.doopedia.co.kr](http://www.doopedia.co.kr)

디지털거창문화대전 [www.geochang.grandculture.net](http://www.geochang.grandculture.net)

한국학중앙연구원 [www.encykorea.aks.ac.kr](http://www.encykorea.aks.ac.kr)

### <사전>

서울대학교교육연구소, 『교육학용어사전』, 하우동설, 2011

미국정신분석학회, 『정신분석용어사전』,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2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문학비평용어사전』, 국학자료원, 2006

한국사전연구사 편집부, 『종교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1998

### <단행본>

김원방, 『잔혹극 속의 현대미술-몸과 권력 사이에서』, 도서출판예경, 1998

르네 웰렉, 오스틴 워렌, 이경수 옮김, 『문학의 이론』, 문예출판사, 1989

린다 노클린 정연심 옮김, 『절단된 신체와 모더니티』, 조형교육, 2001

박찬욱 기획, 『죽음, 삶의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운주사, 2011

박영택, 『애도하는 미술』, 마음산책, 2014

지그문트 프로이트, 임홍빈, 홍혜경 옮김 『정신분석강의』, 열린책들, 2003

장 라플랑슈, 장 베르트랑 폰탈리스 공저 임진수 옮김, 『정신분석사전』

열린책들, 2005

아놀드 토인비, 아더 쉐슬러 이성범 옮김, 『죽음 그리고 삶』, 범양사,  
1980

에케하르트 캐멀링 편집 이한순, 노성두, 박지형, 송혜영, 홍진경 옮김,  
『도상학과 도상해석학』, 사계절, 1997

올리 분덜리히, 김종수 옮김, 『메멘토모리의 세계』, 길, 2008

### <논문>

최현미, 「17세기 화란파 회화의 기독교적 표상」,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2008

### <학술자료>

김정우, 「삶과 죽음에 관한 이해」,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인간학연구소,  
인간연구(3), 2002, 18-46

박영택, 「한국 현대미술에 나타난 죽음의 이미지」, 경기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시민인문학 제23호, 2012, 9-77

정영한, 「바니타스 정물화의 동시대적 담론; 개념과 양식의 변용, 그리고  
의미의 확장을 중심으로」, 한국기초조형학회, 기초조영학연구  
제 14권 제3호, 2013, 287-295

이한순, 「17세기 초 네델란드의 꽃정물화 : 16세기 식물학과의 관계를 중  
심으로」, 미술사학연구회, 『미술사학보 Vol.25』, 2005, 345-378

이형국, 「도가적 사생관과 기독교적 사생관」, 신학지남사, 신학지남  
Vol.42 No.1, 1975, 43-57

# ABSTRACT

## Study on Painting in the Death and Life in Still Life

– Based on personal works –

Park, Nahwoe  
Dept. of Oriental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an' s University

This dissertation was described based on works from exhibition work of a master's degree titled 'sculptures in backyard' in 2021 to works in 2022 under the topic of image study on life and death through still life painting.

With the personal experience and trauma of losing a family, I began to consider the life and death through research and works. Experience and trauma of death of family broke my daily life while maximizing emotions and I began to have attachment and obsession on things since objects around me seemed to indicate those who left me. Based on these experiences, I started to study Vanitas still life.

I focused on iconography and symbols in art starting from still life painting and I also studied iconography and symbols of other still objects

including the ones of Vanitas still life. I borrowed traditional iconography and images in daily life to reinterpret in my own work style. I also started study and work on paintings based on the theme of the experience of death in daily life.

I included still images that are reinterpreted based on these collections and studies in the screen with thin ink lines after creating background just like dry wall with quartz powder and paris white above the linen that reminds shroud, and I tried to express the meaning of death from iconography and symbols in the paintings more strongly by creating atmosphere of death with these materials.

I tried to express the overcoming attitude and trauma toward the death through theory and material study. I also realized that encounter with trauma on the death is necessary to have correct attitude for the death and to overcome it. So I tried to express them in my works while studying them. In addition, it was an opportunity to develop works that can heal the daily life of those who have suffered from painful experiences with the death in their lives based on study experience of this dissertation.